출가열반재일 맞아 특별한 행사 열린다

중앙신도회 계율산림 법회 포교원 특별신행일지 보급

사찰선 금강경 독송 정진 요가, 명상 강좌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이 가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3월 24일 출가재일부터 3월 31일 열반재일까지 불교계가 특별한 신행활동 증진에 나선다.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되신 성도재일과 더불어 불교 4대 명절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날이다. 특히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은 음력으로 일주일 차이를 두고 나란히 찾아와 20여년 전 부터 정진주간으로 삼아 수행풍토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출가재일을 하루 앞둔 3월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를 개최하며, 31일 조계사에서 회향법회를 연다.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무원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재가불자 단체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계율산림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계율산림법회는 출가열반재일의 8일기간 동안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신행혁신 활성화 차원에서 봉은사를 비롯해 조계사 등지에서 열리며 불자 대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1회 신행혁신 실천 계율산림법회에는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지만, 2회 법회에 3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입재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30일 오후 7시 열리는 회향식 및 수계식에는 전계사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나선다.

이와 함께 신행혁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이번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수행점검을 위해 특별 '붓다로살자' 신행일지를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에 제작되는 신행일지는 연초 포교원이 발간한 신행일지를 8일간 할 수 있도록 간소하게 만든 것으로 포켓북 형식으로 제작됐다.

종단 차원의 신행 운동과 함께 주요사찰들도 출가열반 정진기간을 맞아 특별기도를 진행한다. 서울 조계사는 24일부터 8일기도를 진행하며, 요가와 참선, 명상 강좌도 함께 연다. 특히 이번 출가열반 정진기간 동안 승보공양 운동을 함께 전개해 3월 17일부터 열반절인 3월 31일까지 헌공을 받는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사시예불에서 가족이 함께 동참 가능한 108배 기도를 진행하며, 양산 통도사, 서울 봉은사 등 사찰도 금강경 독송기도를 진행한다. 또 부산 흥법사의 경우 '우리도 부처님같이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특별기도를 진행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승보공양을 비롯해 108참회기도, 자비실천으로 점차 출가열반 정진의 형태가 다변화 되고 있다"며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열반하신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않는 회향의 의미도 있기에 대사회적인 자비실천의 노력을 더욱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포항 이재민에 희망을 선물해요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흥해읍 약성리에 조성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에서 희망보금자리 임시주택 기증식을 열고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주택 20동을 기증했다. 사진 왼쪽 두번째는 주택을 전달하는 이사장 설정 스님.

박진형 기자

'인권' '문화', 판교복지 새해 키워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2018 신년사업 발표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희)은 3월 12일 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인권, 문화, 철학, 건강, 지역 등 8개의 테마로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도서관', 국가적 관심사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경증치매 인지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3대 특화 사업으로 노인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하는 '시니어 영화 공작소'와 '보이는 라디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스마트 기기 활용법, 사찰서 배우세요

불교계, DSLR · 스마트폰 강좌 등 스마트 불자 양성 나서

올해 70이 넘은 김숙자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다.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며느리에게 몇 번 묻기도 했지만 눈치가 보이는 상황. 김 씨는 자연스럽게 평소 다니던 사찰의 종무원에게 묻는다.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6070세대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맞춰 불교계가 스마트 기기 활용 강좌를 시작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9일 개강하는 백송불교대학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스마트폰 강좌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열리며 총 180여 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폰 강좌는 종로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작동법부터 카카오톡, MMS 메시지 보내기, 유튜브 영상 보기, MP3 재생하기, 인터넷 하기 등 다양한 활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은숙 조계사 교육국 팀장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법 포교를 고민하는 지금, 사찰에서 불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강좌는 인기가 높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의 경우 2016년부터 DSRL 등 카메라 활용법을 알려주는 사진강좌를 열고 있다. 매 회 강좌가 만원이 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올해 3월에도 신도 및 일반인들을 위한 사진교실을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모집한다. 입문반의 경우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되며,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법부터 DLSR 작동, 출사까지 배울 수 있다. 심화반은 3월 20일 개강한 상태로 6월 12일까지 총 12강이 열린다.

특히 입문반은 낮 시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 학생, 신도들을 위해서도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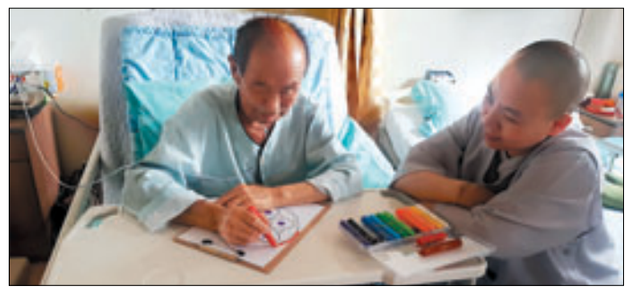
봉은사 관계자는 "카메라 활용법 등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찰의 다양한 행사를 찍어 알리는 또 다른 전법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⑤

도우 스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영적돌봄가

매순간이 수행… "더욱 임종 돕겠다"



2013년, 막 강원을 졸업한 도우 스님은 봉사를 위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을 찾았다가 CPE 임상상담교육을 접했다. 임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자재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보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는 말에, 수행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다. 스님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더욱 생각하고, 정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나를 다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기 위해서라는 능행스님의 말에 봉사는 계속 이어졌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임종을 해도 6~8시간 환자를 모시고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이 온전히 사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우 스님은 특히 어린 아이들의 사별을 강조했다. 도우 스님은 "어른들은 어린 아이가 가족을 잃으면 애써 뒤로 아이를 빼곤 한다. 아이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제3자가 되는 것"이라며 "아이들도 가족과 사별할 권리가 있다. 요즘은 임종을 지키러 오는 아이들의 의사를 묻고, 환자와 단 둘의 시간도 만들어주고 있다.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별을 잘 마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도우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였다. 스님은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밧드의 모험'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빨리 죽어 희망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꿈꿨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호스피스를 하며 보니 죽음이 사는 것만큼 중요하고, 쉬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특히 도우 스님은 임종을 맞는 환자들을 돌보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작년에 춤을 추며 임종을 맞이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소에도 시민선방에 다니며 수행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와서도 항상 웃으시고, 함께 염불을 외셨습니다. 기력이 다 하셨을 때에도 팔 다리를 흔들며 콧노래를 부르곤 하셨죠. 그리고 임종이 다가와 임종호흡을 하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염불과 기도를 해 드렸더니 그 임종의 순간에도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웅얼거리시고 손가락을 까닥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생전 활발발하게 염불을 외며 춤을 추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저도 이토록 아름답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돌봄을 하면서 본인의 수행이 참 많이 된다는 스님은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프로그램과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